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요단강을 건널 때 I (여호수아 3:1~ 5:12)

이중윤 원로목사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흥분한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막으로부터 긴 여정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행진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들 대부분은 사막에서 태어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도 80줄이었다. 전 생애를 바쳐 이날만을 기다렸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창 15:18 - 21).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 반복되었다. 이 벽간 감격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했다(수3:5).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3 - 5장에 가득 하며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다(3:7, 3:12, 4:2 - 3, 4:14).

- ① 요단을 건너는 일,
- ② 밟고 지난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는 것
- ③ 길갈에 열두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라는 것이다.

I. 언약의 법궤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정확히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언약의 법궤가 있을 뿐이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신 10:4),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민17:10, 히9:4),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만나 향아리(출16:33,34)등이 들어 있다.

언약궤는 증거궤(출20:6), 언약궤(민10:33), 여호와와 궤(수4:11), 하나님의 궤(삼상3:3), 주의 능력의 궤(대하6:41)등으로 불린다.

3장에는 법궤가 9번 언급되고 있으며 4장에는 7번 이상 언급되었고, 대명사로 4번 이상 언급되었다. 왜 법궤가 이토록 중요한가? 법궤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신다. 그 법궤는 그리 크지 않았다. 길이 3피트 9인치, 폭 2피트 3인

치였으며 정금으로 덮고 안에도 금으로 싸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퍼 속죄소를 덮게 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민10:35 - 36).

1.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한 그들은(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또 하나의 중요성은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인도하신다는 증거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3. 법궤는 하나님의 권능, 통치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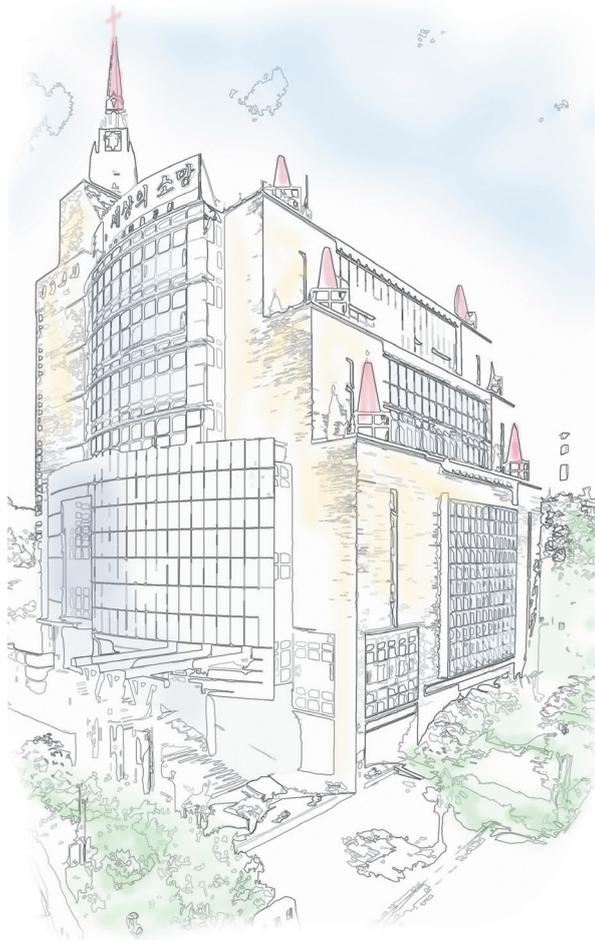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40년 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4.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성결케 하며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5.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마리아는 모세와 함께 장막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거기서 미리암은 심판을 받아 문둥이가 되었다. 심판이 임한 것이다(민12:1 - 15).



한국기독교 학술원 제 52회 학술 공개 세미나 3.1 운동과 한국 교회

5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원로목사)은 오는 5월 28일(월) 오후 2시에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 52회 학술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독립만세운동의 심지에 불이 붙어졌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만이 일체를 이루어 한 목소리로 열광적인 만세를 연달아 외쳤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행진하는 시위 군중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기세가 맹렬했다. 숨도 한번 제대로 크게 쉬어보지 못하고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대한독립만세

제52회 학술공개세미나

3.1운동과 한국교회

일시 : 2018. 5. 28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세민 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a Christians of Korea

서울 주부동 과감사당 90 간대기독교회관빌딩 910호
Phone: (02)764-0376-7 Fax: (02)742-6889
http://www.instit.ac Email: institute@instit.ac

를 감격에 겨워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마음껏 목이 터져라 전국에서 연거푸 외쳤다.

조국을 부동켜안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일념으로 도시에서나 농촌, 어촌, 두메산골까지 그곳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삼일만세운동이 국민운동이 되고 애국운동이 된 근거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적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의 제52차 학술공개세미나 주제를 『3.1운동과 한국교회』로 정하고 이상규 박사, 김권정 박사가 강사로, 박명수 박사, 연구홍 박사가 논찬으로 선다.

신천지 OUT!

우리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REVELATION]
매주 찬양예배 시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오후근 윤헌기/정미자 송재현 김형상/최금숙 홍성미
최근자 정복순 최원자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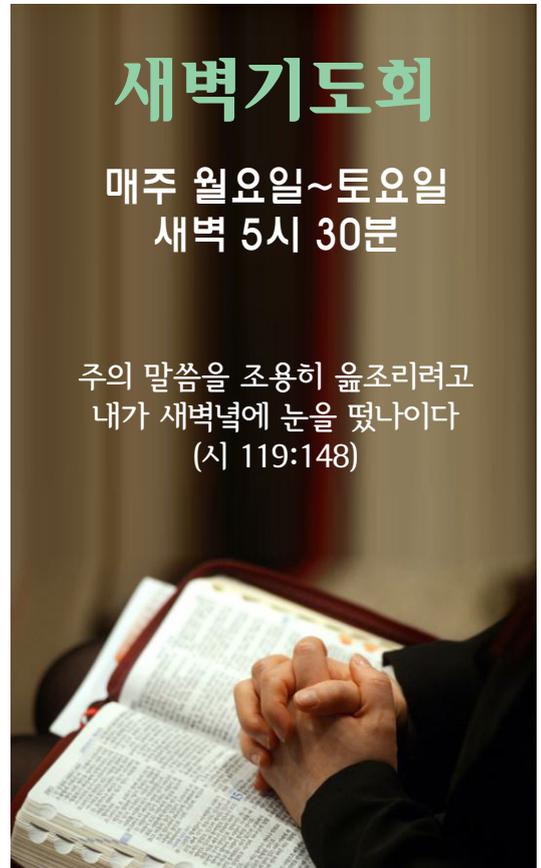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토요일
새벽 5시 30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순례자 추천 서적



서울교회 대청부를 거쳐 전도사를 역임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국 목사의 신저 『묵상과 해석』이 출간되었다.

"... 2016년부터 2년간 「매일성경」에 연재된 내용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중략) 이 책은 묵상의 방법보다 방향에 대해 씩씩하게 만들고, 더 깊은 묵상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깊이 있는 묵상, 해석학적으로 바른 묵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책일 것이다..."

(서문에서)

"성경 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은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읽어 내는 경건 활동이다. 말씀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삶은 묵상을 통해 해석된다. 묵상을 통해 반추되지 않은 삶은 해석되지 않은 채 남는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삶에서 많은 의미를 읽어 내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산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22일	주일	왕상 22		렘 4-9	
4월23일	월	왕하 1-4		렘 10-15	
4월24일	화	왕하 5-7		렘 16-23	
4월25일	수	왕하 8-10		렘 24-30	
4월26일	목	왕하 11-13		렘 31-35	
4월27일	금	왕하 14-16		렘 36-44	
4월28일	토	왕하 17-18		렘 45-50	

지금은 새로운 선교적 목회 패러다임을 가동해야 할 때

국내에서 살아가는 터키 무슬림들은 모든 무슬림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단지 예언자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결코 그리스도(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권 선교현장에서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지구촌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무슬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 문화권에서도 이슬람권 선교의 장이 펼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현장과 다를 바 없는 이슬람권 사역의 장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일부 특정 선교사들에게만 일임하던 예전의 인식에서 이제는 새로운 선교적 목회 패러다임을 가동해야 하는 매우 급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1. 무슬림 근로자 사역의 특징

지금 국내에는 우리가 선교 전략 용어로 자주 사용한 소위 '10/40' 창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지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의 '블루오션'으로 주목해야 할 사역이 바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조만간 다시 귀국할 사람으로, 이는 한국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 가정을 보내어 얻게 될 어떠한 열매보다도 훨씬 적은 수고로 국내에서도 현지인들의 전도와 육성 및 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을 향해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연을 가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2. 00교회 사역들

현재 00교회는 터키인들을 중심으로 무슬림들

만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특이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처음 이들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쫓겨 난 사람들,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또 그들의 이슬람 신앙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음에도 공장의 돼지고기가 섞인 식사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해 저희 00 교회가 도움 일은 그리 어렵거나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저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들의 언어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며, 이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었을 정도인데 지금까지 서른한 명이 세례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3. 00교회 사역 보고

현재 매 주일 출석 인원은 10명의 한인 사역자를 포함해서 평균 30~40여 명이며 주로 터키 사람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세례 자는 총 31명이며, 대부분은 추방이라는 비자율적 출국을 통해 귀국했으며 현재는 5명이 개인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역은 매월 제 4주 주일 13:30-15:00 교회의 전도사역을 위한 연합운동의 하나로 출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통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의료선교팀(팀장 노제현 집사)이 짝수 달 4번째 주일에 찾아 오셔서 안과, 한의, 의약품 등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1) 매 주일 회개 및 결신자를 독려하는 사역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이는 그 주일 예배가 그들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2) 지속적인 장기 양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방 등의 귀국 후 현지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연계성 유지 및 해외 선교지 순회 방문을 통해 출국 외국인들의 고향 방문 및 지속적인 양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터키인들 사역 (예배 시 한국어, 터키어 순차 통역으로 설교)

(4) 터키어를 사용 매주 주일 후보 제작(남은 후보 모두 전도지로 활용 중).

(5) 평일 심방 사역
주중 평일 평균 1회 저녁 시간에 교회 출석하는 형제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함께 식사 및 다과와 함

께 개인 교제를 통해 관계 도모 및 개인적인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6) 토요 전도사역

매월 2회씩 토요일마다 동두천, 양주, 송우리 포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순서적으로 조를 짜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4. 00교회 기도 제목

1. 대표로 섬기는 김요셉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해 터키 근로자 형제들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2. 현재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터키인 핫*, 세*긴, 무*파형제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먼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3. 가까운 시일에 구체적인 복음 전도 위해, 현재 기도 중인 터키인 베*셀, 오*, *인, 아*큰, *웬 형제와 *다 자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4. **지역의 유일한 무슬림 전담교회로서 00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더 많은 외국 무슬림 근로자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5. 현재 교회 출석 중인 사역자 자녀 5명의 어린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치부 전담 사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소서.

6. 현재 기도, 재정 그리고 의료선교를 통해서 00교회와 함께 동역 중인 서울교회에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의 열매 통해 동일한 은혜와 기쁨,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7. 대표로 섬기는 김요셉 선교사의 주일 설교를 비롯한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참석한 모든 터키 근로자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하시며 예배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여 주소서.

(선교사님과 교인들 신변보호를 위해 교회명과 이름,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